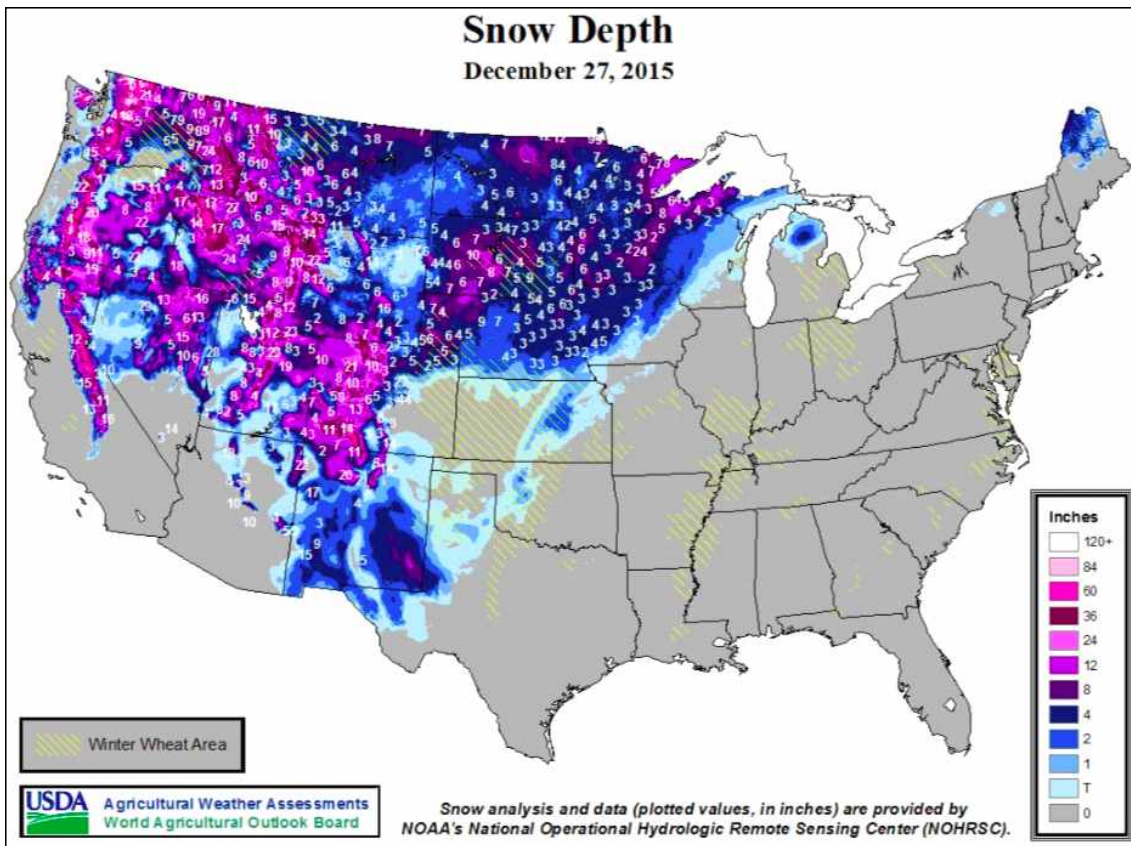




## 12월 2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52)

### □ 미국 기후 현황(12/20~12/26)

북서부에서 기승을 부리던 한파는 동부로 이동해서 번덕을 부렸다. 북서부 일대에서는 주초반 비가 내리면서 가뭄을 해소해 주었고,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내렸다. Sierra Nevada 남부 일대에도 눈이 내렸고, 현재 이 일대의 적설량은 10 인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13~2014년과 2014~2015년 겨울 적설량보다 많은 양이다. 서부 일대에서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반면, 동부에서는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테네시 계곡과 애틀랜타 일대에서는 평년보다 최소 20°F 이상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고, Deep South 일대에서는 주 후반 낮 최고기온이 80°F 이상 오르기도 했다. 남동부 일대에는 4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강물이 범람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플로리다 일대에도 비가 내렸고, 대평원과 중서부 일대에서는 눈이 내렸다.



## □ 농업 현황 요약(12/21~12/27)

동부 전역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15°F 이상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달리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 수준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걸프만 일대와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알라바마와 조지아에서는 평년 수준보다 최소 6인치 이상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 □ 세계 기후 현황(12/20~12/26)

■ 유럽: 지중해 연안 일대에서는 일시적인 가뭄이 있었고, 북부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대서양 상공을 지나는 기류의 영향으로 프랑스와 영국, 폴란드, 발틱 연안 국가들에서는 5~4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져 겨울 작물의 파종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 남부 등에서는 최근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60일 동안 평년 대비 25~50%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평년 대비 10%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일부 국가에서는 평년보다 4~8°C 정도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 구소련(서부):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로 인해 예년처럼 눈이 농경지를 덮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며, 동해 피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북부, 러시아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5~25mm 내외의 눈이 내렸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최고 11°C 정도 높아 눈이 농지를 덮어주는 단열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부와 북부의 일부 추운 지역에서는 겨울밀이 휴면기에 접어들기도 했다.

■ 호주: 동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날씨도 비교적 따뜻해서 여름작물 생육 환경은 좋은 편이다.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와 빅토리아 동부에서는 비로 인해 겨울 작물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확 작업에 진전이 있다. 호주 남부와 서부 일대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덥고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겨울 작물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아르헨티나: 전반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도 적정 수준으로 내리고 있어 여름 작물의 생육 환경은 좋은 편이다. 중부의 La Pampa, Buenos Aires, Cordoba 남부, Santa Fe, Entre Rio 등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반면, 남부의 겨울 작물 재배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평년수준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약간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부지역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오르고 있다. Santa Fe 북부와 Chaco, Formosa 동부에서는 50~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북서부에서는 3~25mm 내외의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내렸고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아르헨티나 중부 일대에서는 평년수준의 기온을 유지하는 가운데 낮 최고온도는 30°C 후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 브라질: Mato Grosso, Goias, Mato Grosso do Sul 등 중서부 곡창지역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북동부 내륙지역에서도 소나기가 내렸지만, 그 밖의 동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고 있다. 북동부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뭄은 최근의 이상 고온 현성으로 인한 것으로, 이들 지역은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3~6°C 정도 높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0°C 후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Minas Gerais 남부와 Sao Paulo 등 커피와 사탕수수 재배지 일대에서도 비슷한 기온이 유지되고 있지만 낮 최고기온은 30°C 초반에 머물고 있다. Minas Gerais 남부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남부의 Sao Paulo와 Rio Grande do Sul에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Rio Grande do Sul 서부에서는 2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저지대 일부가 침수되기도 했다.